

哲學의 一般化와 俗流化(一)

韓稚振씨의 夏期講座를 읽고

申南澈

傳統의 羈絆에서 버서 나오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의 偏見과 反對를 粉碎하여 버리고 發瀾한 行動과 感激의 거리로 나아옴에는 主意기픈 自己省察도 必要하겠지만 社會의 歷史的 發展의 理勢에 對한 巨軍한 河見을 □得하지 아니하고는 어려운 것이다. 必然的 作用은 흔히 그것의 歷史的 蓄積을 土臺로 하여 비록 持續力은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巨大한 活動을 營爲한다. 그리하여 그 위에 북도다진 因 觀念形態는 何等의 思考와 把握도 업시 새 營爲의 進行에 對한 死別하여가는 精神의 後裔를 斷絶시키지 안겠다고 齷齪하는 것이다. 그것의 努力이 비록 悲壯하고 眞摯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內包된 反對者의 營爲는 少臺도 그 悲壯에 對하여 가엾서하지 안흔 썬만 아니라 그것의 眞摯에 對하여는 可借업는 克服에의 理論과 實踐이 되어잇슬 것이다.

그러나 그 傳統의 反動的 作用이 너무 沒廉恥하고 卑怯할 썬에는 도리혀 어찌케 그것을 理論짓고 反省케 하여야 할는지도 모지 알 수가 업는 일이 往往잇기도 한 것이다. 비록 從來의 學的 生命을 喪失한 學說이나 理論이 새 假面과 조각褌 모흐듯이 마쳐서 變裝하여 登場한다 할지라도 (事實로 過去한 學說이 새 解釋과 加工 下에 다시 興起하는 일이 잇는 것은 우리가 哲學史나 그 外에 만흔 理論的 學問이 잇서 發見 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決코 조각褌는 아니다.) 그만한 努力 가운데에 무엇이든지 집어 낼만한 건데기가 잇슬 썬에는 도리혀 그것에 對한 努力만한 敬意라고 表하고 심혀도 한 것이다. 그러나 數만흔 大家들의 力作 中에는 間或 비록 그들은 難解의 것을 一般化(認識論 上의 用語로서의 一般化가 아니라 오직 普通의 慣用, 例가 指示하는 一般化, 卽 平易化, 大象化를 意味한다.) 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眞正한 一般化가 아니라 曲解에서 나온 俗流化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잇슴을 發見 할 수 잇는 것이니 그 썬 마다 우리는 苦笑하지 안흔 수 업는 것이다.

이제 나는 (哲學이 一般化와 俗流化)에 對하여 생각한 바를 말하겠으나 (썩 타이틀)로 쓴 것과 가티 韓稚振氏의 (哲學 上으로 본 生存의 意識)의 讀後感을 中心삼아 □字적어 보려한다는 나는 韓氏의 種種 發表되는 論文을 어뎛드라면 이번의 그의 論文을 理解하기에도 좀 도움이 되었을는지 모를 것을 나는 그것들을 읽을 熱誠을 가지지 못하였섯슴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單只 該論文에만 依據하여 韓氏의 造詣를 付度하는 것은 無計일는지 모르나 나는 될 수 잇는 대로 그것에 忠實하려고 한다.